

新大久保と二村洞

皆さんは、新大久保と二村洞(イチョンドン)という街の名前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新大久保は東京を代表する繁華街、新宿のすぐそばにあつて、韓国から来た人たちがたくさん住んでいる街です。新大久保の駅に降りると、すぐハングルの看板が目に入ってきます。街行く人の口から聞こえてくる言葉も日本語よりも韓国語が多いぐらいです。東京にいながらにして、韓国に旅行に来た気分になれます。二村洞はソウルにある街で、ここには反対に駐在員を中心とした日本人がたくさん住んでいます。日本語の看板が溢れ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ここでは韓国ではあまり見かけない自転車に乗る人や、日本語で立ち話をしている駐在員の奥さんの姿をよく見かけます。

여러분은 신오쿠보와 이촌동이라는 거리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신오쿠보는 도쿄를 대표하는 번화가인 신주쿠 바로 옆에 있으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오쿠보역에 내리면 곧 바로 한글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입에서도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도쿄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여행 온 느낌이 듭니다. 이촌동은 서울에 있는 동네로, 여기에는 반대로 주재원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어 간판이 넘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일본어로 수다 떨고 있는 주재원 사모님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